

# 『근우(權友)』와 붉은 여성\*

## -새로운 여성전통의 창조

이태숙\*\*

### 〈차례〉

1. 서론
2. 국토의 상징과 무궁화 자매
3. 붉은 여성의 등장-무궁화 자매에서 노동농민여성으로
4. 결론

### 〈국문초록〉

『근우(權友)』는 근우회의 기관지로서 총 1회 발간되었다. 근우회는 좌우합작 단체였던 신간회의 자매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후 일제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과 신간회 해소를 둘러싼 논쟁이 모든 통일전선적 단체로 파급되면서 해소 결의도 못한 채 해소되고 만다. 『근우』는 근우회의 합작 당시 성격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는 발간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궁화 자매라는 것이었다. 민족 전통으로서의 무궁화와 이후 근우회의 지향으로서의 붉은 여성은 근우회를 넘어서는 여성운동의 전통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러한 전통은 운동의 역량 강화와 방향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근대 민족운동의 과정에서 목도되었던, 창조된 전통의 한 사례로 분석될 수 있다. 조선을 넘어서는 한민족의 전통으로서의 무궁화가 근대적 전통(傳統)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면, 여성운동의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육 부교수

이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통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적기(赤旗)이다. 적기는 여성운동이 노동농민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전통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시되었다. 무궁화 자매와 적기는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전통을 제시하는 상징이 되었다.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이 근대적 전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근대전통은 반제반봉건을 위한 민족의식으로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만들어진 전통, 붉은 여성, 무궁화 자매, 적기, 근우, 근우회

## 1. 서론

『근우』는 좌우합작 단체였던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의 기관지로 총 1회 발행되었다. 1929년 5월 총 122면으로 발행된 이 잡지는 모두 38명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근우』의 발행주체였던 근우회는 1920년대에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1924. 5)가 창립되면서, 경성여자청년동맹(京城女子靑年同盟), 경성여자청년회(京城女子靑年會)를 거쳐 조직되었다. 근우회의 주요 강령은 여성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향상이었으며, 운동 목표로 봉건적 굴레와 일제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을 제시하였다.<sup>1)</sup> 특히 근우회는 당시 여성계에서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우회가 조선 여성운동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근우회의 대표적인 사업은 계몽운동이었고 이와 연관되어 가장 투쟁성을 발휘한 분야는 여학생 운동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여성운동이 여학생층에 크게 의지했으며 또 여학생들의 투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고 근우회도 학생부를 두어 깊이 연결되어 있던 상황

1) 菅原百合, 『1920年代의 女性運動과 權友會』,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52~53쪽.

에서 실증되는 바이기도 하다.

기존의 『근우』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 되어 왔다. 우선 사회주의 여성운동론의 맥락에서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의 기관지로서 분석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sup>2)</sup> 다른 한 방향은 이 단체에서 활동했던 여성 문학가들의 사상적 배경이 형성되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그것이다.<sup>3)</sup> 기존의 연구는 『근우』를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이나 여성작가의 연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도 가진다. 이에 본고는 『근우』가 특정 단체의 기관지였다는 점과 사회주의 운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것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전통으로서의 사회주의 여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디어는 그 자체가 형성하는 담론의 형성기능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기관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근우』의 ‘만들어진 전통’에 관한 분석은 기존 연구가 간과했던 의식의 형성 기능과 그 표상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전통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적 분석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문화연구의 한 흐름은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대중성을 규정하는 방향으로서의 ‘전통’이 가지는 의미부여의 기능이다. 에릭 홉스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유럽에서 새로운 국경일, 의례, 영웅, 상징물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등 ‘전통의 창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그로부터 ‘전통의 발명’과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적 정체성과 전통의 창조’가 그것이다. 현재의 필요에 의해 과거가 재구성된다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면 ‘전통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에게 동질성이 부여되는 과정은

2) 張寅模, 『1920年代 權友會 본부 社會主義자들의 女性運動論』, 『한국사연구』 제142호, 한국사연구회, 2008.9.

3) 김연숙, 『社會主義 思想의 수용과 女性作家的 正體性』,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33권 제4호, 통권 제128호, 2005.12.

당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홉스봄의 이론이 발표된 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의 사례를 찾아내는 노력들이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론은 그 계승자들에 의해서는 주로 민족과 민족주의의 허구적이고 조작적인 측면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용어와 분석방법은 국가와 민족·민족주의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해 감에 있어 ‘전통’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그것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의도와 적절한 기획 속에서 창조되고 제도화하였는지 하는 것과, 그것이 뜻한 대로 인간 공동체에 유익한 긍정적 효과를 산출 하는지가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통상 공인된 규칙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례나 상징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관행들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것들은 특정한 가치와 행위 규준을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내포한다. 그런 관행들은 가능하다면 언제나 역사적으로 기념하기에 알맞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확립하려고 든다<sup>4)</sup>

전통의 발명이 더 자주 일어나리라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가 급속히 변형됨으로써, ‘낡은’ 전통이 기반하고 있던 사회적 패턴들이 약화되거나 파괴되어 그 결과 낡은 전통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질 때나, 아니면 낡은 전통과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매개하고 보급하는 수단이 더 이상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 나가거나 아예 사라져버렸을 때이다. 그런 변화들은 특히 지난 200년 사이에 중요했다. 따라서 주로 이시기에 새로운 전통들이 집중적으로 공식화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sup>5)</sup>

4) 에릭 홉스봄, 박지향,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20쪽.

5) 에릭 홉스봄, 앞의 책, 26쪽.

일제강점기는 국권상실과 더불어 자율적 근대로의 이행이 저지되고 강제적이며 억압적인 근대로의 이행이 강요되었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근대적 모든 요소들이 일제의 억압통치와 연결되면서 자리 잡았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국기와 국가에 대한 전통으로서의 국민의례를 일제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인식형태의 수용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민의례가 일제의 유산으로 잘못 인식되게 되는 전후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민의례를 포함한 근대국가의 전통을 일제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복에 대한 거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제잔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근대의 만들어진 전통으로 주목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일제강점기와 관련성을 내재하고 있고, 그 중 다수는 일제의 유산으로 혹은 근대이후 우리 역사를 양분한 이념 대립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무궁화, 적기 등도 그러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중심으로 당대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근우회와 그 기관지 『근우』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주의 여성전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고착화되는가에 대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근우회나 『근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개별작가나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의미화에 치중함으로써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그러한 작업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의미화되는가에 대한 분석이었다. 특히 하나의 미디어가 형성하는 지침으로서의 표상화 작업이 대중들에게 특정한 인식의 틀을 요구하고 그러한 특정한 인식의 틀이 체화되는 과정은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화 작업이 미디어와 결합하는 작동방식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에 수록된 담론들이 어떠한 전통을 만들어내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통합하는 기체로서 그리고 새로운 여성형으로서의 사회주의 여성형이 제기되는 방식을 통하여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집단에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과거의 표상이 전통으로 재창

조되고 그것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하는가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당대 사회가 요구하던 공동체의 통합기체로서 전통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의 구성원들의 복종과 충성심을 확보하고 집단의 정당성을 추인해가는 과정이 드러난다.

## 2. 국토의 상징과 무궁화 자매

근우회는 일제 강점기에 조직된 대표적인 여성 단체이다. 김활란, 고향경, 박차정 등이 조선 여성의 단결을 도모하며 여성운동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근우회는 신간회의 외곽 지원 단체로서 1927년 한국의 여성운동가들이 좌우를 초월하여 설립한 단체였다. 좌파와 우파 합작의 여성 단체였으며 신간회와는 자매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927년 5월 27일에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으로 출범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의 유각경, 교육인인 차미리사, 김활란, 황신덕, 언론인 최은희, 사회주의 계열 항일운동가인 정철성, 의사인 유영준 등이 참여하여 각계 각층의 여성 인사가 망라되었다. 근우회의 애초의 취지는 애국여성단체를 포괄하는 좌우합작 단체였다. 하지만 『근우』가 근우회 창립이후 2년여가 지나서야 발간되었던 현실적 문제에서 창립당시의 근우회와 『근우』 사이에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분명 『근우』는 근우회의 기관지였지만, 근우회의 정체성은 『근우』 발간 당시에 이미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우회는 협동전선의 내부 조직이 아니라 여성들만 따로 묶어 별도의 조직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결성되었는데, 이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근우회를 과도적 형태의 단체로 파악했다. 정철성, 박순천 등이 그러한 인식을 했던 주동 인물이었다. 하지만 근우회는 전국적 규모의 대중

조직이었다.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지부를 중심으로 여성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관한 강연회, 교육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던 조직이었다. 하지만 1931년 1월에 신간회 일부 지부가 해소를 결의하면서 근우회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근우회에 대한 일본의 탄압이 잇따랐으며, 계급투쟁을 통한 민중 해방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와 교육 활동을 통한 민중 계몽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혼재된 근우회의 구성도 근우회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했다. 결국 중후반기 활동을 주도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이탈로 근우회는 1931년에 해체되었다.

근우회의 이름이 되는 근우의 무궁화는 근우회의 상징이면서 근대적 전통의 한 줄기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근우회라는 이름이 어떤 이유로 명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이런 이름이 좌우합작의 의미를 강화하고 특정한 정파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외연을 넓히는 작용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우회라는 이름에 얽힌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근우회로 다시 태어난 근우회 회장 이희자 씨의 증언이 있다.<sup>6)</sup> 이 회장은 근우회 회원들이 항일의 방법으로 무궁화 사랑을 실천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이 증언하는 창경궁 벚꽃 사건은 창경궁에 동식물원이 설치되었던 융희2년(1909년)의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其後 융희 원년 丁未에 隆熙帝가 移御한 후 당 某某大官의 發議로 왕가의 遊樂을 위하여 동식물원 및 박물관을 설치하고 동물은 其時 私營 동물원(소규모)업을 하는 劉漢性 소유의 동물을 전부 구입하고 飼養 기타 관제로 그를 동물원장으로 삼었고 식물은 日本 宮內省 內苑에 교섭하여 구입

6) 김지형, 『항일여성단체 근우회 맥 잇는 이희자 여사 “어머니의 열두 폭 치마로 분단 상처 감싸줬어요”』, 『민족21』, (주)민족21, 통권 제14호, 2002.5, 130~133쪽. 동아일보(2003.4.6),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 “무궁화 사랑은 겨레사랑權友會는 일제가 창경궁에 심어진 무궁화를 다 뽑아내고 일본 국화인 벚꽃을 심자 속치마에 무궁화를 수놓는 방식으로 겨레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근우회 활동을 기억하신 시어머니의 권유로 주부들의 작은 생활운동으로 시작했죠.”

하얏스며 博物은 宮內府 某某高官이 其任에 당하여 넓이 蒐集하였다. 당시에는 但히 왕가의 한 오락장에 불과하더니 其後 점차 확장함을 따러 隆熙3년 己酉10월부터 일반에 공개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규모도 자못 宏大하고 기타 일반 설비가 완전할 뿐 아니라 봄이면 夜櫻이 특히 불만하고 관람자 每夜 수만에 달한다. 식물원의 북에는 老樹가 울창하고 구릉이 逶迤하니 此 즉 秘苑이다. 四園에 풍광이 幽邃하고 水石이 奇麗하니 其中 玉流泉, 太極亭은 國中の 勝景地로 봄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錦繡와 가튼 中 秘苑의 珍物인 松茸가 산출하여 한번 보면 仙境에 入함과 如한 感이 있다. 다만 유감은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아즉 일반 관람을 식히지 않는 것이다.<sup>7)</sup>

한국근우회는 1927년에 결성된 근우회의 무궁화 자매라는 근대적 전통이 어떻게 유지 지속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이다. 일체의 만들어진 전통들에서 역사는 가능한 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제와 집단을 통합하는 접촉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무궁화는 겨례의 전통이면서 동시에 좌우합작이라는 불편한 동거를 취한 여성단체를 통합하는 가장 강력한 통합체로서 작동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궁화 자매는 여성의 상징으로서 꽃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좋은 전례가 되었던 것이다. 민족운동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질적인 구성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며 단체의 정체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궁화는 가장 효과적인 통합 기제로서 창조되었던 것이다. 이후 우리의 근대의식 안에서 무궁화와 여성, 민족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좌우합작의 여성단체 안으로 들어온 무궁화가 어떻게 일제강점기 동안 겨례의 상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논의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무궁화가 국토의 상징으로서 전해지다가 한일

7) 考古生, 『京城이 가진 名所와 古蹟』, 『별건곤』 제23호, 1929.9.27.



합방과 함께 점차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항일의 방법으로서 논의 되게 되었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무궁화 동산 사건으로 알려진 남궁억의 십자가당 사건(1933)이 그것이다. 남궁억의 십자가당 사건은 항일저항의 상징으로서 무궁화가 하나의 전통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결합하면서 무궁화는 통합의 기제로서 두 저항의 방법을 결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먼저 무궁화가 국토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온 전례를 알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때부터 보편적으로 무궁화라는 한자를 쓰게 되었는가이다.

아마 지금부터 25년 즉 朝鮮에도 開化風이 불게 되어 洋人の 출입이 頻繁하게 되자 그때 先進이라고 하던 尹致昊씨 등의 發議로... 洋樂隊도 세우고 國歌도 창작(?)할 때 ... 附屬되어 생기었다고 하는(?)... 愛國歌의 後歛인 『無窮花 삼천리 화려 강산』이라는 구절이 끼일 때에 비롯오 槿花 즉 무궁화를 『無窮花』라고 쓰기 시작한듯하다 합니다... 그리고 이와 전후하여 島山 安昌浩 先生들이 猛烈히 民族運動 즉 國粹運動을 일으킬 때에 朝鮮을 無窮花에 비기어 靑山같은 웅변을 懸河같이 吐할 때마다 『우리 무궁화 동산은...』 하고는 주먹이 깨어질 듯이 책상을 두드리고 演壇이 부수이질 듯 말을 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극과 동기로 槿花가 無窮花로 변하여 그 때에 국민이라고 하던 사람의 귀에 익어지고 입에 오른 듯 합니다.<sup>8)</sup>

무궁화가 공식적인 상징으로 쓰인 첫 번째 사례는 1892년의 닛양 은화에서 꽃가지가 묘사되면서부터로 알려져 있다.<sup>9)</sup> 무궁화는 이후 1900년에 훈장(紫鷹章)과 문관의 대례복에 쓰임으로써 공식적으로 국가 표상으로

8) 萬年?人, 『朝鮮國花』無窮花의 來歷; 朝生夕死로 永遠...錦繡江山의 表徵, 고래로 조선에서 숭상한 근화가 무궁화로 변해 국화가 되기까지, 『東亞日報』, 1925.10.21.

9) 무궁화의 일체 강점기 상징화 작업에 대해서는

목수현, 『大韓帝國期 國家 視覺 象徴의 淵源과 變遷』, 『美術史論壇』 27호, 2008.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우표, 훈장증서, 장식단추 등에서 그 모습이 보인다.<sup>10)</sup> 이후 조선왕실의 상징으로서 오얏꽃이 무관 대례복에, 무궁화가 문관 대례복에 쓰이다가 1905년 외교권의 박탈이후 무궁화는 사라지게 된다. 대신 무궁화는 ‘무궁화가’라는 노래로서 살아남게 된다. ‘무궁화가’는 애국가의 원형의 하나로 논의되었는데, 따라서 애국의례가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무궁화가’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독립협회에서는 1896년 국기에 경례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이른바 ‘국민의례운동’을 전개하며 처음으로 국가를 제정하여 보급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독립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집회의 식순에 애국가를 제창하는 순서를 넣었다. 하지만 당시에 정해진 애국가는 없었던 것 같다.<sup>11)</sup>

익국 흐는거시 학문상에 큰 조목이라 그런 고로 외국서는 각 공립 학교에서들 미일 아춤에 학도들이 국기 압회 모혀 서서 국귀를 대 흐야 경례를 흐고 그 나라 님군의 사진을 디 흐야 경례를 흐며 만세를 날마다 불으게 흐는거시 학교 규칙에 데일 긴흐 조목이요 사름이 어려슬재 브터 나라를 위 흐고 님군을 스랑 흐는거시 사름의 직무로 밤 낮 비화 늦커드면 그므음이 아췌 박혀 자란 후라도 나라 스랑 흐는 므음이 다른것 스랑 흐는것 보다 더 높고 더 중히질지라<sup>12)</sup>

1899년 6월 배재학당에서 치뤄진 방학예식에 대한 독립신문의 당시 기사는 예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오후 두시에 진행된 졸업예식은 기독교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sup>13)</sup>,

10) 목수현, 위의 글.

11) 李明花, 「愛國歌 형성에 관한 연구」, 『역사와실학』 제10·11집, 역사실학회, 1999.1, 637~667쪽.

12) 독립신문, 1면 논설, 1896.9.22.

13) 배재학당은 1885년 8월 3일,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한국

예배와 학교 졸업식, 그리고 민족정신 고취라는 당대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이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부른 ‘무궁화 노래’는 후렴구가 지금의 애국가와 동일한 가사였다.

○ 방학 레식) 오늘 오후 두시에 정동 회당에서 비지학당 학도들의 방학 레식을 거행 한다는디 ○ 모든 학원이 노리 하고 ○ 목사 씨포씨가 기도 하고 ○ 김창선 리유봉 량씨가 한문으로 시전과 력디 스락을 강 하고 ○ 유전 씨가 영어로 새에 합당 할 일을 강 하고 ○ 리규치씨가 영어로 텃연흔 희락을 강 하고 ○ 리슈남 리대용 량씨가 국문으로 미이미교회 문답 디구 락론을 강 하고 ○ 리응진씨가 영어로 방학 권설 하고 ○ 의원 슈에민씨가 풍유 하고 ○ 교사 흘법씨가 권설 하고 ○ 노병선 한광하 송언용 민찬호 남궁혁 제씨가 교육 문답 하고 학부 대신 민병석씨가 권설 하고 본 학당장이 변설 하고 ○ 모든 학원이 무궁화 노리 하고 ○ 교사 썬룩쓰씨가 거슈 축스 한다 더라 ○ 무궁화 노리는 一성직 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 슈려 동만도는 우리 본국일세 ○ 후렴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름 대한으로 길히 보전 하세 二이국 하는 털심의기 북악 ㄱ치 높고 춤춘 하는 일편 단심 동히 ㄱ치 김허 三천만인 오직흔 므음 나라 스랑 하야 스롱공상 귀천 업시 직분문 다 하세 四우리 나라 우리 황태 황태이 도으샤 군민 공락 만만 세에 태평 독립 하세<sup>14)</sup>

이 노래는 동일한 후렴구는 물론 운율적으로도 현재의 애국가와 비슷하여 원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 학교에서 애국의례가 행사에서 행해졌고, ‘무궁화가’가 애국가의 일종으로 불림으로써 학생들에게 애국의를 길러줬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예식이라는 것이 집단적 기억을 안정화 시키려는 전략으로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무궁화 노래’가 예식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이다.

14) 독립신문, 1899.6.29.

15) 이명화, 앞의 글.

에서 불렸다는 사실은 이 당시에 겨례의 상징이 하나의 전통으로서 진행되고 있던 과정을 보여준다.

무궁화를 겨례의 상징으로 보고자 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일제 강점기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은 남궁역을 중심으로 한 무궁화 운동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십자가당 사건’으로 명명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무궁화가 겨례의 전통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항일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궁역은 고종의 어전 통역관이었으며, 궁내부 토목국장, 독립협회 수석총무, 황성신문사 초대 사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는 1918년 그의 고향인 홍천에서 5200평의 터에 모곡교회와 모곡학교를 세워 신앙교육을 했고, 무궁화 묘포장을 만들어 전국으로 묘목을 보급하였다. 당시 남궁역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반일의 의도를 가지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南宮憶의 행위는 日韓併呑 및 현 정치에 극도의 불만을 품고 조선을 독립시켜 조선의 왕정을 복고하려는 계획 아래 사립 牟谷학교를 설립하고, 동교 생도에게 불온한 역사 및 불온한 창가 등을 가르쳐 민족주의 사상을 주입시켜서 후일 조선독립의 기초를 만들려 했고, 또 무궁화 및 불온한 조선 역사를 널리 반포하여 모두 민족주의 사상을 선전함과 동시에<sup>16)</sup>

남궁역의 ‘십자가당 사건’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결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피의자들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스콜운동’을 그 전범으로 삼았다고 심문조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의 저항 운동을 분명한 모델로 해서 오랫동안 기획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신간회와 근우회가 우파와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단체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십자가당 사건’은 기독교와 사회

16)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8(十字架黨事件 裁判記錄 2), 十字架黨事件(二)(國漢文), 소화 八年 一二月 一四日.

주의 사상의 결합을 바탕으로 한 외국의 특정 사례를 전범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7)</sup>

우선 종교기관을 이용하여 강력한 단체를 조직하고 세계대전의 혼란을 틈타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일본제국의 기반에서 벗어나 조선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박애주의에 의한 인류애, 계급제도 철폐, 천부의 자유권리를 향유하는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노동 러시아처럼 유물적으로 치우친 공산주의 사회보다 초월한 진정한 이상적 평화사회를 만들고, 이것을 점차로 전 세계에 파급시키자는 일대 결의로<sup>18)</sup>

겨레와 잃어버린 국토의 상징으로서의 무궁화가 근대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기독교, 그리고 새로운 저항운동의 사상적 바탕으로서의 사회주의와 삼각 결합하고 있음은 이 사건의 가장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사실 이 세 가지 표상은 민족, 종교, 이념의 삼각 연대로서 당대의 저항의 방법이 결합한 가장 독특한 사건이었다. 일제에 의해 ‘십자가당 사건’으로 명명되었던 남궁역의 무궁화 동산 사건은 마지막 황실의 관료였던 한 언론인이 당대의 모든 이념적 상징을 결합했던 사건이었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전통이 어떤 식으로 당대에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무궁화가 당대 민중 특히 여성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국토의 회복을 위한 염원을 담고 있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여학생들이 자수로 무궁화를 즐겨 수놓았음은 인상적이다. 동해 쪽을

17) 남궁역 선생의 기념관은 현재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다. 기념관 옆에는 무궁화 동산과 한서교회가 함께 있으며, 선생의 묘역은 강원도 기념물 제 77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궁역의 ‘십자가당 사건’은 무궁화를 겨레의 전통적 표상으로 하여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당대 항일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18)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8(十字架黨事件 裁判記錄 2), 十字架黨事件(二)(國漢文), 소화 八年 一二月 一四日.

줄기로 하여 무궁화 꽃이 피어있는 모습의 자수들은 무궁화가 국토를 상징하는 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9)</sup> 우리는 근우회의 명칭으로서의 근우가 민족을 강조하며, 무궁화를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함으로써 통합의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대에 쓰여진 무궁화에 관한 일련의 글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sup>20)</sup> 『근우』에 소개된 각 지역 근우회 지회 활동에서 가장 활발한 부분이 문맹퇴치를 위한 강습과 바느질 모임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1)</sup> 근우회 창립 당시부터 『근우』가 발간되던 당시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근우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역량을 보였던 부분이 한글 보급을 통한 대중계몽과 바느질 모임을 통한 여성들의 연대강화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우회는 동경지회의 문제제기 이후 발전적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산의 과정을 밟게 된다.



19) 목수현, 앞의 글, 2008, 308쪽에서 자수그림 재인용.

20) 禹浩翊, 『無窮花考(上)』, 『동광』 제13호, 1927.5.1.

禹浩翊, 『無窮花考(中)』, 『동광』 제15호, 1927.7.5.

禹浩翊, 『無窮花考(中의 下)』, 『동광』 제16호, 1927.8.5.

21) 『東亞日報』(1930.12.20), 『農村文盲退治와 迷信과 因襲을 打破 중앙간부와 부서도 전부 선정 擴大委員會決議』, 당시 權友會 확대위원회에서는 문맹퇴치를 위한 강습을 중요 정책으로 결의하고 있다.

『東亞日報』(1927.7.7), 『權友會 第一回 宣傳日: 오는 십오일 회원 총출동하여 헌겁으로 만든 단추를 판다고, 단추는 團結을 表象』, 단추 만들기 모임은 여성들의 일상적 행위와 근우회의 활동성이 결합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었다.

### 3. 붉은 여성의 등장-무궁화 자매에서 노동농민여성으로

근우회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결합을 표방하면서 전개되었음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 명칭에서 드러나는 근우(무궁화 자매)가 대중성을 표방하고 있다면, 근우회의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양상은 사회주의적 성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무궁화 자매가 노동농민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부의 요청은 『근우』 창간호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결국 근우회가 대중성에서 선명성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다. 『근우』에서 드러나는 전통의 모습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표상인가 기획되었는가의 차이일 것이다. 이른바 사회주의 전통이 어떤 식으로 제기되고 있는가는 바로 『근우』 안에서 드러나는 여성운동의 전통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알려준다. 그것은 전통이 상징성을 가지는 반면 인습관례는 실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다. 표상(representation)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가 또는 기획되었는가의 경계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전통의 창조를 만나게 된다. 우리는 학생운동에서 적기(赤旗)의 등장과 여성운동에서 사회주의 여성, 즉 붉은 여성의 전통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목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우회의 지향성으로서의 여성운동의 방향성이 어떤 방식으로 정립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근우회의 지향성은 여성의 불합리를 세계의 모순과 연결하고자 하는 선언의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이전 시기 자유주의 여성형을 새로운 여성형으로 대체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朝鮮女性을不利하게하는 本質에잇서 朝鮮會社全體를괴롭게 하는 그것과 連結된것이며 一步를進하여는 全世界의 不合理的와 依存合流된것이니 모든問題의解決은 이에서로關聯되어 따로따로히 成就될수업게되 었다<sup>22)</sup>

여성문제의 해결을 조선사회의 모순과 연결시킴으로써 일제억압과 연결시키고, 전세계의 불합리와 연결시킴으로써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과 연결시키고 있는 발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방식은 『근우』를 관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1920년대의 가장 문제적 여성인 노동농민여성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먼저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가 등장한 1920년대 전반은 노농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여성노동자에 의한 노동쟁의가 처음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1923년 7월의 경성고무공장 파업을 비롯하여 주로 제분, 정미, 방직, 제사 등의 부문에서 여성노동자에 의한 노동쟁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여성노동운동은 당시 사회주의 여성들에게 무산계급여성의 사회적 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보였다. 『근우』의 표면적 지향은 통합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산여성과 유산여성을 나누고, 유산여성을 전근대적, 기생적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농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무산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지향성이 바뀌어야 할 것임을 강변하고 있다.<sup>23)</sup> 특히 여성운동의 대중화에 대해 다른 표현이 있어서 주목되는데 그것은 대중화의 방향성을 노동농민여성에게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근우회 창립당시의 대중성이 우파와 좌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당시의 대중여성이 직업을 갖지 못한 부녀자나 여학생들을 다수로 하는 것이었다면, 정작 근우회내 사회주의 여성그룹은 대중성을 지식여성을 넘어서 노동농민여성을 포괄하는 쪽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농민여성이 가지는 운동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방향설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運動은 넘어도偏狹하였으며 大衆化하지못하였다 全朝鮮

22) 『權友會宣言』, 『權友』, 1929, 3쪽.

23) 丁七星, 『意識的覺醒으로부터』, 위의 책, 35~37쪽.

정철성은 근우회의 위원장으로 이후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특히 기생출신이라는 이력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고, 이후 월북하였으나 남로당 속칭 시 사라진다.



女性の八割以上을占領한勞農婦人方面으로는 우리運動이넘어도等閒하였다 現在京城에는 고무, 精米, 印刷, 製絲, 織物, 煙草等 個人이經營하는小規模의工場까지合하면四五人式이라도女職工을收容하는 工場이五百餘處나되고女職工이三千八百七十餘名이나된다<sup>24)</sup>

근우회의 정치적 지향성이 사회주의 여성운동으로 향하고 있음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서울여학생 만세운동이다. 근우회 회원들이 다수 관련되었고, 규모도 서울지역 여학교 다수가 참가한 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근우회의 중심인물이었던 허정숙이 주동하였고, 이화여고보에서는 최복순, 김진현 등이 참여하였으며, 1930년 1월 15, 16일에 걸쳐 일어났던 시위는 3월의 삼일절까지 계속되었다. 그해 1월 27일 모두 102명의 여학생이 구속되었으며, 그중 8명이 기소되었던 사건이었다.<sup>25)</sup> 이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태극기와 함께 적기(赤旗)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적기는 이화전문 휴학생 이순옥(李順玉)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당시 이순옥에 대한 조서는 학생운동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상징이 사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종으로 같이 살고 있던 이화여고 학생 윤옥분(尹玉粉)의 부탁으로 태극기를 만들려던 이순옥은 적기와 뼈라를 함께 만들게 되었다. 당시 18세이던 이순옥은 근우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허정숙과 이순옥의 어머니가 교류하던 사이였고, 이순옥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간도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순옥이 적기와 뼈라를 만들게 된 연유는 대단히 개인적인 것으로 진술되고 있으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의도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

24) 朴晸辰, 『女職工訪問記』, 1929, 70쪽.

25) 서울여학생 운동에 관해서는 당시의 신문 『동아일보』에서 상세하고 다루고 있고, 서울 여학생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김성민, 『광주학생운동의 확산과 서울지역 시위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20, 2003.

고 있다. 총 3회에 걸친 이순옥의 진술서는 당시 여학생들이 사회주의자가 되고,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양상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sup>26)</sup> 이순옥에 의해 만들어진 적기와 뼈라, 태극기는 증거로서 남아 있는데, 당시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각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문 사슬로 포위되고 있는 별을 그린 마크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 별은五大주의 민족을 뜻하는 것으로 포위하고 있는 사슬의 관철이 풀어져 있으므로 요컨대 五大주에 있는 피압박 약소민족이 제국주의의 압박적인 사슬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뜻한 것으로 뼈라에 기재되어 있는 문자의 의미를 간단히 그 마크로 표시한 것이다.

(중략)

문 그러면 낮 가운데에 별을 그린 마크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 그것은 노농 러시아 국기의 마크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지만 전술과 같이 별은 五大주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낮은 보통 노동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무산대중을 뜻하는 것으로 그 마크의 의미를 한 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의 무산대중을 의미하는 것이다.<sup>27)</sup>

26) 이순옥의 진술과 적기의 사용을 당시 여학생 운동의 주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연구도 있다. 김성민은 이 글에서 당시 이순옥이 이화여고보 졸업생이었고, 중앙청년동맹원이었다는 점에서 이순옥의 적기 제작과 당시 이화여고보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식과는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순옥의 당시 신분에 대해 김성민이 졸업생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오류로 보인다.

김성민, 앞의 논문, 237~238쪽.

27) 李順玉, 「신문조서, 同盟休校事件3」, 『裁判記錄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1』, 1930.



의 의도에서 기인한 우연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학생운동에서 하나의 전통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여성운동의 방향전환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순옥이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았었고, 근우회와의 관련도 없었으며, 독자적으로 행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sup>32)</sup> 개인의 이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대의 운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5년 전 일어났던 적기사건은 적기와 시위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1925년에 화요회가 주도한 조선민중자대회가 금지되자 일어난 이른바 적기사건은 대중시위에서 적기가 등장한 최초의 사건이었다.<sup>33)</sup> 여학생 운동에서 적기가 등장한 것은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 학생운동의 지지기반을 분명히 하고 안정성을 희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 여학생 운동에서 민족의 전통으로서의 태극기와 이념의 상징으로서의 적기가 함께 등장한 것은 민족과 이념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근우회의 운동방향이 좌우합작이라는 불안한 동거에서 이념적 지향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은 동경지회의 문제제기 이후부터로 흔히 규정된다. 여기에서 동일한 이념적 지향과 방법론을 연대적으로 구성해왔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예외적 규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원칙'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방향설정에 기준이 되었던 코민테른의 여성운동방침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코민테른은 여성조직 방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성별조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동양의 식민지·반식민지 국가의 여성운동방식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른 '특수한 활동방식'을 따를 것을 권장하였다. 이렇게 볼 때, 조선여성동우회부터 근우회에 이르기까지 성별조직은 코민테른의 이러한 정책과 동

32) 이순옥의 특정단체 가입에 대해 김성민은 앞의 논문에서 중앙청년동맹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신문조서에서는 특정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3) 박현영의 부인 주세죽과 함께 경성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조봉암의 부인 김조이가 당시 적기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던 것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적기사건은 여학생 운동이 아니었지만, 경성여성운동의 핵심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가 참여한 시위에서 적기가 사용되었던 기록이기 때문이다.

일선상에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근우』에 담겨져 있는 불안한 동거는 사회주의 여성의 핵심 세력으로서의 노동농민여성에 대한 강조가 곳곳에 담겨져 있는 기고문들에서 깨어진다. 운동의 주축으로서 노동농민여성은 지식여성으로서의 여학생을 일종의 제거해야할 이념적 방해물로 규정하는 선명한 계급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좌우합작의 불안한 동거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감은 근우회 전국대회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한 여공은 “燦爛한 服裝을 입은 油頭粉面의” 부르주아 여성들로만 가득 차 있었던 회장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근우회에 여성노동자가 참가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俱樂部”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근우회는 앞으로 노동현장에 들어가 투쟁을 통해 그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던 것이다.<sup>35)</sup> 노동농민여성을 주축으로 한 근우회의 방향 전환에 대한 지향성은 당시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던 노동여성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난다. 여직공 방문기의 묘사<sup>36)</sup>에서는 14~5세 소녀들에 대한 감성적 묘사가 주를 이루고,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전환의 호소로 이어진다.

방향전환의 당위성은 조선의 가정(家庭)이 남성과의 노예관계를 고착화 시키는 굴종(屈從)의 함정(陷穽)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업방면으로 진출해서 사회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과 함께 家庭婦人으로 살게 되는 것은 社會的 意識의 不足이며 가정으로 물러남’<sup>37)</sup>은 그러한 관계를 고착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적차별의 계급발생이 가정이라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념화의 경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34) 전상숙,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서 본 식민지 초기 社會主義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집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1.2. 47~48쪽.

35) 京城紡績會社 一女工, 「全國大會를보고」, 『青年朝鮮』, 1928.7.31.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第5卷, 韓國學振興院, 1987. 404쪽에서 재인용)

36) 朴晁辰, 「女職工訪問記」, 『權友』, 1929. 256쪽.

37) 裒成龍, 「朝鮮女性運動의 現在」, 『權友』, 1929. 19쪽.

남녀관계의 문제의 근본은 경제, 사회제도, 개인이 아님<sup>38)</sup>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서아 帽쓰고 붉은 옷 입은 부인운동가가 낫다’<sup>39)</sup>는 주장으로까지 연결된다. 『근우』가 근우회의 기관지였지만, 창립 당시의 이념적 정체성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근우』의 담론들을 중심으로 근우회를 분석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근우』의 급진적 담론들 너머에 실재했던, 각 지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대중회원들의 실제 활동을 고려한다면, 근우회가 대중여성운동과 민족주의가 결합되었던 초기의 이념적 지향성을 견지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근우회가 견지했던 창립 당시의 이념적 정체성은 그것이 비록 근대적 전통으로 창조된 것이었지만, 민족의 역량을 담지 한 의미 있는 전통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만이 단순히 근우회의 기관지로서의 『근우』만이 아닌 우리 역사와 운동의 전통 안에서의 의미 있는 요소로서의 『근우』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좌우합작 여성단체로 출발해서 이념적 선명성을 위해 해소되었던 근우회의 기관지 『근우』는 근대적 전통으로서 여성과 여성운동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보여준다. 당대의 핵심 운동역량이었던 민족과 이념운동이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결합된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면서 이후의 여성운동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무궁화와 붉은 여성이라는 전통의 창조이다. 무궁화가 국토와 겨레의 상징으로서 일체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면서 여성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근우, 즉 무궁화 자매이며, 이것은 조직 내의 요구와 전체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붉은 여성이라

38) 鄭憲台, 『權友會의 任務와 發展策』, 『權友』, 1929. 21쪽.

39) 秋川, 『内外國婦人運動의 情勢』, 『權友』, 1929. 24쪽.

는 인터내셔널의 표상과 결합하고 실제 운동 내에서 적기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낸다. 무궁화가 여성과 민족, 운동이 결합한 새로운 전통으로서 제시되었다면 여학생 시위에서의 적기의 등장은 운동의 방향성이 이념으로 진행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근우회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근우회와 『근우』가 가지는 시간적 차이에서 유래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만들어진 전통과 흡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이 가지는 차이점이다. 먼저 근우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기관지 『근우』가 근우회 창립 2년여 후에 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근우』는 근우회의 창립 당시의 불안한 동거가 이미 갈등 단계에 접어든 이후에 발간되었으며, 따라서 초기의 지향성이 변화한 이후의 담론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무궁화 자매는 바로 그러한 시기적 문제를 고려할 때만이 유효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흡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이 이른바 근대적 전통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그것이 조작되었으며, 우연과 의도가 결합한 오도된 전통이었음을 밝히는데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만들어진 전통과 다른 역사적 진행과정을 걸어왔던 우리 근대사에서 전통의 재창조는 근대 국가와 민족적 전통을 피압박 역사의 굴레 안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근우』가 지향하고자 했던 민족과 이념의 결합체로서의 사회주의 여성전통의 창조는 일제의 탄압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지만, 전세계 사회주의적 전통 안에서 일관된 흐름과 연관되어 있었던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후 여성운동에서 태극기와 적기가 함께 등장하는 시위는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이 1930년대 이후 일제의 탄압에 의해 국외로 망명하거나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고, 해방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해방 이후 우리 역사가 이념적 선택에 의해 국가체제가 구성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權友』, 『독립신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朝鮮問題資料叢書』, 『東亞日報』

### 2. 단행본

에릭 홉스봄, 박지향,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3. 논문

京城紡績會社 一女工, 『全國大會를보고』, 『靑年朝鮮』.1928.7.31(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第5卷, 韓國學振興院, 1987. 404쪽)

考古生, 『京城이 가진 名所와 古蹟』, 『별건곤 제23호』, 1929.9.27. 18~29쪽.

禹浩翊, 『無窮花考(上)』, 『동광』 제13호, 1927.5.1. 2~15쪽.

\_\_\_\_\_, 『無窮花考(中)』, 『동광』 제15호, 1927.7.5. 4~8쪽, 41쪽.

\_\_\_\_\_, 『無窮花考(中の 下)』, 『동광』 제16호, 1927.8. 23~26쪽, 5쪽.

菅原百合, 『1920年代의 女性運動과 權友會』,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김성민, 『광주학생운동의 확산과 서울지역 시위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20. 2003.

김연숙, 『社會主義 思想의 수용과 女性作家的 正體性』, 『어문연구』,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제33권 제4호, 통권 제128호, 2005.12. 333~358쪽.

김지형, 『항일여성단체 權友會 맥 잇는 이희자 여사 “어머니의 열두 폭 치마로 분단 상처 감싸겠어요”』, 『민족21』, (주)민족21, 통권 제14호, 2002.5. 130~133쪽.

목수현, 『大韓帝國期 國家 視覺 象徴의 淵源과 變遷』, 『美術史論壇』 27호, 2008. 289~321쪽 .

朴晔辰, 『女職工訪問記』, 『權友』, 1929. 70쪽.

裒成龍, 『朝鮮女性運動의 現在』, 『權友』, 1929. 19쪽.



李明花, 『愛國歌 형성에 관한 연구』, 『역사와실학』 제10·11집, 역사실학회, 1999.1. 637~667쪽.

張寅模, 『1920年代 權友會 본부 社會主義자들의 女性運動론』, 『한국사연구』 제142호, 한국사연구회, 2008.9. 367~419쪽.

전상숙,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서 본 식민지 초기 社會主義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집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1.2. 33~57쪽.

丁七星, 『意識的覺醒으로부터』, 『權友』, 1929. 35~37쪽.

鄭憲台, 『權友會의 任務와 發展策』, 『權友』, 1929. 21쪽.

秋川, 『内外國婦人運動의 情勢』, 『權友』, 1929. 24쪽.

## Abstract

### 『GeunWoo』 and the Red woman

- A Creation of new feminine tradition -

Lee Taesuk

『GeunWoo』 that was the official organ of the Association of GeunWoo was published total one time. It was a Sisters group of Singan-hoe. Singan-hoe was a right and left joint work group. Later, GeunWoo-hoe carried out a developmental solution. At first, 『GeunWoo』 had a publication gist that had put in a character of that was published. The character was the rose of Sharon sisters. the rose of Sharon from national tradition met the red women as a directivity of GeunWoo-hoe and they made a tradition of a Feminine movement. Like this tradition respects the ability reinforcement and directivity of motion with the fact that comes to make intentionally, it could be analyzed that was carried on a shoulder pole from process of modern racial movement, one instance of the tradition which is created. The rose of Sharon was created with modern tradition. It strengthened the ability of feminine motion was for and a tradition of the Korean race who passes over Korea. the Red Flag was presented with new tradition. It presented the directivity of feminine motion after 1920's. the Red Flag was presented in a process of Socialistic tradition that was focused on work farmer woman. the rose of Sharon sisters and the Red Flag had become a symbol of tradition that presented the directivity of feminine motion. And they was made to do the duty

which is meaning to the modern nation and ability reinforcement of the nation. The invented tradition which Eric Hobsbawm comes to make was for a negative recognition about modern tradition, but our modern tradition as the national consciousness for feudalism was created is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there is a difference from point.

Key words : the invented tradition, a Red women, the rose of Sharon sisters, the Red Flag, GeunWoo, GeunWoo-hoe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